

상대적 사랑의 차원을 높여라

작성일 : 2012. 10. 16.(화) 새벽 3시 30분

작성자 : 백진희

(새벽 기도를 오는 길에 계속해서 성자 주님을 찾으며 교회로 왔습니다. 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상대적 사랑의 차원을 높이고 싶다고 간구하며 상대적 사랑의 차원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었을 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.)

성자 주님의 말씀

대화다.

상대와의 첫 말이 중요하며

선생을 통해 배운 것 또한 대화이지 않느냐.

대화를 통해 성삼위와 더욱더 가까워짐을 느끼며

대화할 때 소통이라 하지 않느냐

대화 없이

절대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나니

그래서 내 선생 통해

대화의 기도하라 했다.

그러나 섭리사 아직도

나와 대화하는 자 적으며

마음으로도 소통하는 자 적도다.

(주님, 왜 그럴까요? 많은 말씀 속에 수없이 소통과 대화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?)

자기식의 사랑, 자기식의 기도에 빠져

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 자들 많구나.

습관이 되어 버려

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

그러나 이 마지막 때 고치지 않으면

앞날에 나와 소통과 대화는 더 어려울지니

이 때 목숨 걸고 고친다는 심정으로 고쳐서

나와 깊은 대화하길 바라노라.

섭리사 전체가 진정 나는 그러하길 원하노라.

한번이 어려워져서 그렇지

너희들과 나는 대화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.
그러니 절대 일방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.

오래된 자일수록 습관이 되고 굳어져서

일방적 기도하는 자가 많으니

너희는 처음 신앙하는 자들의 순수한 마음같이
나와 깨끗한 사랑을 다시 나누자.

사랑의 대화가 그리 깊고도 깊으며

내 마음을 녹이는 키이니

절대 비고 빈 마음에 내 사랑을 느끼며

소통하길 바라노라.

(주님, 오래된 자들이 ‘생명의 기도’기간 이 마지막
때에

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?)

너희들이 깨어나

선생을 위해 기도한다면

섭리사 제단에 기도의 불, 생명의 불이

더욱더 붙어 나갈 것이다.

나는 항상 먼저 된 자가 잘되길 원하노라.

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

진정 깨닫기를 바라노라.

사랑의 대화가 어렵다고

절대 생각지 말아라.

너희의 머릿속에서

아예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지 않으면

나와 상대적 사랑, 사랑의 소통을

절대 나눌 수 없노라.

그러니 마음에서부터 너희의 뇌에서부터

안 된다, 어렵다는 생각을

썩 지워 버리기를 바라노라.

섭리사 핵심이 사랑이지 않느냐.

그 중에서도 상대적 사랑이다.

절대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으니

너희는 더욱더 상대적 사랑에 눈을 뜨며 느끼며

나와 뜨겁게 사랑하자!

신랑이 와서 속삭이는데

신부가 대답하며
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.

이 말에 “아멘!” 화답하는 자,
내 오늘도 성령으로 사랑으로 다가가
사랑의 능력 더해 주리라.

(아멘! 주님, 감사합니다. 상대적 사랑의 근본의 핵은
주님과의 대화인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셔서 감
사드립니다.)

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라면
모든 것을 대화로 진행하며
대화로 이어가지 않느냐.
대화하지 않으면
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
오해가 생기고, 거리가 멀어지듯이
나와도 그러하다.

대화의 기도다.
상대적 사랑의 차원도
누가 더 깊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
나를 더 느끼게 될지니
꼭 도전하고 도전해서
삶 가운데 체질이 되어
너희 선생처럼
어디에 있든지, 무엇을 하든지
나와 대화하며 소통하길 바란다.

섭리사 모든 자들이
나와 대화하며 소통하길 원하는
성자 주로다.

사랑한다.
하면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
나와 대화하길 바라노라.